

약물오남용 및 부작용에 관한 피부과 영역의 전향적 대기관 임상 역학연구(대한피부과학회, 대한피부과개원의 협의회 공동연구)

이원수¹, 은희철², 박한성³, 이승현⁴, 문상은⁵, 신학철⁶, 김홍직⁷

연세원주의대¹, 서울의대², 박한성 피부과의원³, 연세의대⁴, 보라매병원⁵, 신학철 피부과의원⁶, 김홍직 피부과의원⁷

전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하며 불필요한 추가의료비용 유발로 국가경제에 큰 소실을 초래하고 있는 약물오남용 실태를 조사하여, 의약품 특히 피부외용제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, 의약품업 시대를 맞아 안전성 측면에 바탕을 둔 철저한 의약품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

1999년 7월 한달간 전국 126개 피부과 병의원(종합병원 21, 개인 의원 105)에 내원한 외래, 입원 및 타과자문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임상 역학연구를 시행하였다.

외래신환 27,881명중 2,897명(10.4%), 입원환자 180명중 18명(10%), 타과자문환자 1,736명중 73명(4.2%)이 약물부작용 환자였다. 외래 약물부작용 환자중 약진은 20.6%, 스테로이드 외용제 오남용 47.9%, 각종 국소도포제 접촉피부염은 24.1%, 기타 7.4%로 나타났다. 약물 취득 경위는 약국 문진후 구입 58.3%, 자가진단 후 21.5%, 타과 진찰후 10.7%, 피부과진찰후 5.7%로 전체의 79.8%는 의사의 진찰없이 약을 구입하였다. 외피용제 부작용은 스테로이드(71.3%)에 의한 것이 비 스테로이드제제에 의한 부작용(28.7%)보다 많았으며,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오용사례(66.3%)가 남용사례(33.7%)보다 높게 나타났다. 부작용을 일으킨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역가가 높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제제까지 망라되어 있었다.

피부과 외래신환의 10.4%가 약물부작용환자이고 이중 70%정도는 각종 피부외용제의 부작용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의 오용사례가 66.3%에 이르는 사실은 정확한 진단하에 약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.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역가가 낮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부작용환자가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구입한 사실을 볼 때, 부작용의 범위가 대단히 좁고 안전성이 극도로 확보된 일부 외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피용제는 처방의약품으로 엄격히 분류해야만 의약품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.